

2017.11+12 | Vol.193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Dail

다일, 새로운역사로.....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또 다른 시작

유난히 길고도 풍성했던 한가위를 보내고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에는 우리 다일에도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의 소식들이 풍요롭게 전해졌습니다.

8월 29일, 다일공동체 최초의 해외 분원인 중국 다일공동체는 중국 정부와의 오랜 약속을 지키고 20년간 소중히 키워 온 다일 어린 이집을 훈춘시 복리원에 이양했습니다. 뜻 깊은 이양식 현장에 전 원장님들을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그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수고해 온 모든 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다일 어린이집을 후원하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려 드리며, 이제는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중국 다일공동체에도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중국 뿐 아니라 필리핀에도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9월 24일에는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해 온 다일공동체 까만씨 커뮤니티 센터, 세부 밥퍼, 까만씨 다일교회의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1페소의 기적을 기억하시지요? 청량리 밥퍼 자존심 유지비 100원 짜리 동전 10만개 천만원을 필리핀 1페소의 기적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분들의 소중한 마음과 정성이 더해져 기적을 만들어 낸 감격스러운 나눔의 현장이었습니다. 앞으로 까만씨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초교육, 위생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앞장 설 것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18번째 필리핀 세부 까만씨 분원에 이르고, 자존심 유지비 백원이 모여 또 하나의 열매로 밥퍼 분원이 건립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작은 헌신들이 모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다일의 새로운 사역들을 한 마음으로 기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며 뜨겁게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형제, **허** 믿으실림

CONTENTS

02

특집기사 I

중국 다일공동체
20년의 마무리,
그리고 또 다른 시작

05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06

특집기사 II 다일공동체, 필리핀 세부에서 밥퍼를 시작하다

10

나눔이야기 NC다이노스의 따뜻한 밥퍼나눔 인터뷰

12

다일의 국내외 현장이야기

32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36

신규후원

38

후원안내

40

각 분원 연락처

C.O.V.E.R.S.T.O.R.Y



중국 다일공동체 20년의 발자취

지난 20년간 중국 다일공동체에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다솜
디자인, 인쇄 | 틀니 디자인 여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7년 11월 발행처 | 다일공동체
주소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2212-8004 팩스 | 02-2243-8032
홈페이지 | www.dail.org



① 훈춘시 다일어린이집 성립대회
 ② 초기 중국 다일공동체 아이들
 ③ 2002년도 다일어린이집
 ④ 1대 훈춘시 다일 어린이집
 ⑤ 어린이집 규명동아들

중국 다일공동체 20년의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또 다른 시작.

1997년 중국 훈춘시 밀강에는 다일공동체의 첫 번째 해외분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굶주림에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너온 꽃제비들을 위해 생명키트(쌀과 기초물품주머니)를 강변에 놓아두던 것이 첫 사역이었습니다. 이후 1998년 조선족 고아 12명과 함께 시작된 훈춘시 다일 어린이집은 지난 20년 동안 함께 삶을 나누며 총 70명의 아이들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8월, 중국 다일 어린이집은 그동안의 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2017년 8월 29일, 다일공동체는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양하였습니다. 이양식 예는 훈춘시 민정국 및 다일공동체 대표가 참석하여 20년의 시간 동안 애써준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다일 어린이집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제, 새롭게 지어진 훈춘시 복리원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연과 상처들을 가지고 중국 다일공동체에 찾아온 70명의 아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의 이름이 바뀌고 건물은 사라졌지만,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작은 것부터 함께 나누는 다일의 따뜻한 가르침은 아이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세 이상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중국 다일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중국 다일공동체의 또 다른 시작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중국 다일공동체를 시작으로 다른 해외분원들도 자립하게 되는 그 날까지, 진정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다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동안 다일 어린이집을 사랑하며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훈춘의 아들, 딸들에게" - 중국 다일공동체 이희준 원장

중국다일공동체 20주년을 맞아 약속대로 훈춘시 민정국 아동복지원에 다일 어린이집을 이양하고 돌아온 지금,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너희가 보이고 너희 목소리가 들려. 5시 50분이면 너희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야 할 것만 같은데, 교복은 제대로 입었는지, 각종 준비물에 도시락은 챙겼는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

그동안 너희들의 엄마로 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어. 엄마로서의 부족함, 연약함까지도 이해해주고 받아주어서 정말 고마워. 함께 먹고, 자고, 울고, 웃고 했던 우리들의 시간은 오롯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을 거야. 조금 더 먼 훗날, 우리는 웃으며 그날들을 추억하겠지.

때때로 너희가 힘들어할 때, 그 아픈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마다 엄마는 하늘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던다. 너희의 아픈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매일매일 같이 일하시는 하늘 아버지... 너희를 통해 그분을 보곤 했어. 너희들을 온 맘 다해 축복해!

한국과 중국의 경계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 중국과 한국, 그리고 러시아 국경이 맞닿아 있는 두만강 강가로 소풍을 다니며 꿈을 키워 온 너희들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밖에 없어. ^^ 미국, 한국, 캄보디아 그리고 넓은 중국 땅 각지에서 삶의 터전을 성실히 일구어가는 너희들이 그 증거

야! 너희들이 고맙고 참 자랑스러워. 우리는 부족했지만, 그저 사랑하며 치열하게 살았고, 항상 함께했어. 그래, 아쉬움도 상처도 아픔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사랑만이 남았어. 우리 이 사랑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평생을 더욱 사랑하며 살자.

돌아보면 모두 감사한 시간들이지만, 가장 벅차고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너희가 예쁘게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온 가족이 함께 다일 어린이집에 방문할 때인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고아원에서 자란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고 싶어 하기도 한 다지만, 명절이면 새 식구를 데리고 당당하게 집에 돌아오는 너희의 발걸음은 기쁨이요, 위로요, 감사요, 소망이란다.

앞으로도 너희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 변함없이 함께할게. 늘 너희를 응원한다. 우리는 항상 너희 편이야! 사랑해, 우리 아들, 딸들아!

多一, 就如你的骄傲 你, 是多一的快乐!

다일, 그대의 자랑이듯이

그대, 다일의 기쁨이여라!

- 훈춘 마마, 딸 -

p.s. 사랑하는 중다일의 후원자님들께

중국다일공동체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다일은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먼저 지난 20년 동안 중다일을 후원하고 사랑해주셨던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마음을 다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사랑으로 키워 주신 우리 아이들이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중국 다일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양한 훈춘시 아동 복지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출원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많은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지니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중다일의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훈춘에 남아 이 아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꼭 계속해서 중다일을 후원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입니다!



어린이집 소풍날

중다일 졸업생들이 보내온 편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림예화, 한원철 부부, 그리고 아들 한태민입니다. 저희는 현재 훈춘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랑 덕분에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일, 조홍광 부부입니다. 중국 다일공동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을 위해 기도 해주신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디에서 생활하던지 또 어디에 가든지, 항상 다일의 그 정신을 본받아 나눔의 삶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해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지 벌써 일 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네요. 그 동안 캄보디아에서 받은 감동과 은혜들을 잊지 않고 중국 상하이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도에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훈춘 다일어린이집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과 희망을 품고 사랑과 축복 속에 함께 자라온 보금자리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마음이 많이 안타깝지만, 다일공동체는 영원히 함께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더욱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받아 온 사랑을 나누어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로 더 힘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응원하고 힘내겠습니다. 아자아자!"



중국 다일공동체에서 전해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분들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훈춘시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만 가르치게 되어있어 18세 이상의 청소년과 대학생은 여전히 저희가 돌봐야 하는데 특별히 이번 9월에 대학에 입학한 우리 지향이는 아직 후원자가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훈춘으로 전해 주세요!"

 중국 다일공동체 +86-433-753-8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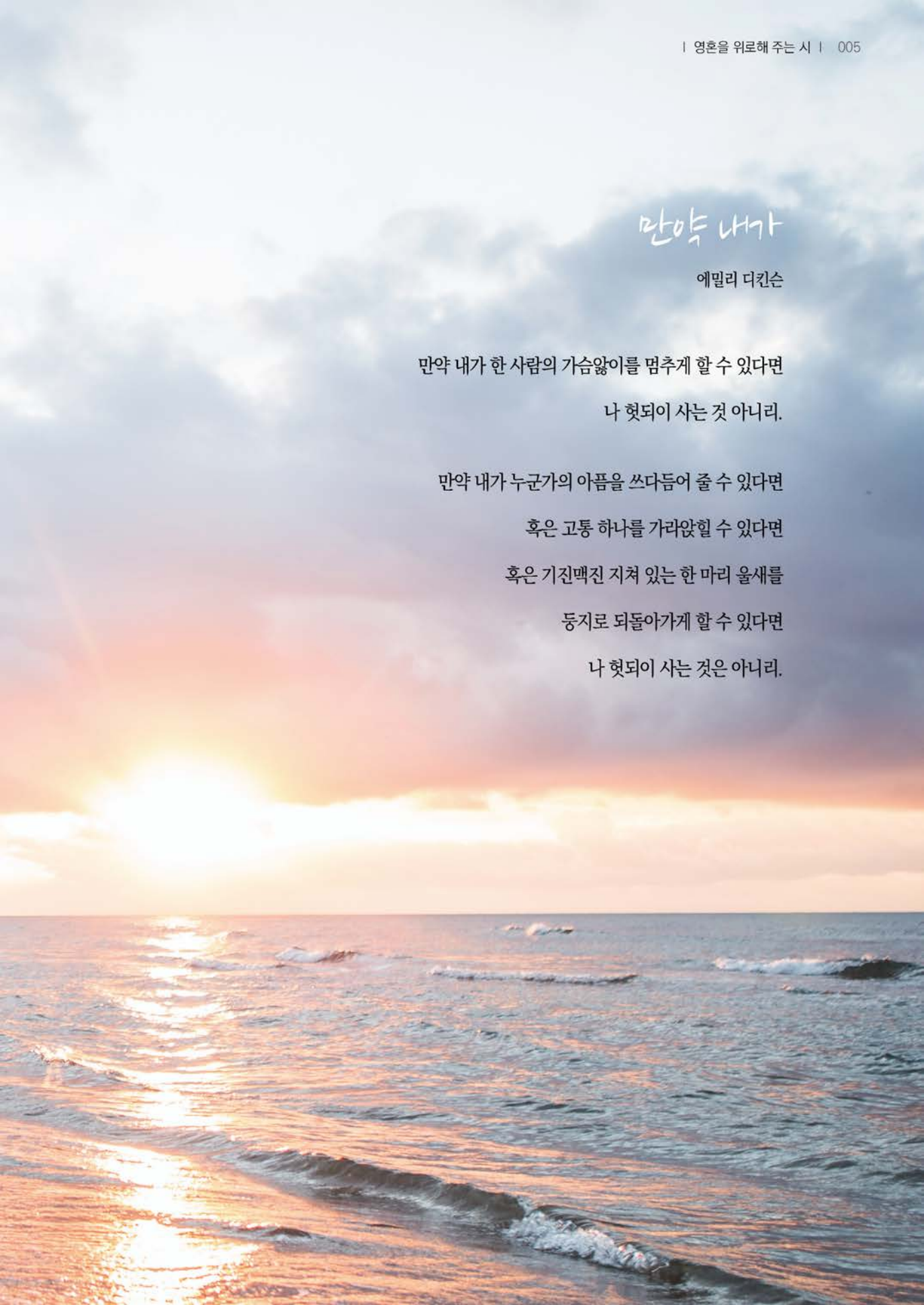
문의) 이희준 원장

만약 내가

에밀리 디킨슨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쳐 있는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다일공동체,
필리핀 세부에서 밥퍼를 시작하다.



필리핀 까만씨 다일교회 및 커뮤니티 센터 개원식

KAMANSI **DaIL** COMMUNITY CENTER



필리핀 세부(Cebu)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화려하고 아름답기만 할 것 같은 세부에 빈민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3월, 다일공동체는 필리핀 세부의 빈민촌인 수상마을 까만씨(Kamansi)를 위해 '1페소의 기적'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검게 썩은 물 위에 지어진 마을의 모습, 그리고 그 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거기에 주민의 대부분이 마약 중독자이고 아이들은 구걸을 하러 다닌다는 사실은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성을 모아 돕자는 의미로 '1페소(Peso: 필리핀의 동전 단위)'를 모으기 시작한지 어느덧 6개월,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드디어 까만씨에서 밥퍼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4일, 필리핀 다일공동체 까만씨 커뮤니티 센터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필리핀 다일공동체 설립자이신 최일도 목사님을 비롯하여 역대 분원 원장님들과 후원자 분들, 그리고 필리핀 원주민 부족회 전체의장님과 현지 목회자이신 에드가 목사님도 오셔서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①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아이들 ② 까만씨 다일공동체의 새출발을 알리는 깃발들
③ 밥퍼 자존심유지비 전달식 ④ 배식중인 최일도 이사장님

이 날 개원식이 더 뜻 깊었던 것은 바로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어르신들이 자존심 유지비로 내 주신 돈이 모여 까만씨 센터가 지어졌기 때문일텐데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과 따뜻한 관심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개원식 후 1층 식당에서 밥퍼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즐거운 기운이 센터 전체에 가득 퍼져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필리핀 까만씨 다일공동체

까만씨 지역의 변화와 더불어 필리핀 전체가 기쁨과 나눔으로 행복하기를 소망하며, 다일공동체는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나눔의 손길을 쉬지 않겠습니다.

까만씨 커뮤니티 센터 개원을 위해 도움과 사랑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필리핀 까만씨와 다일공동체에 많은 관심과 격려 보내주세요!! **DAIL**

 **필리핀 다일공동체 +63-927-560-7346 |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국제사업실)**

기부금 영수증



후원회원님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 발송일시 | 구분 | 후원금 공제범위 |
|--|------------------|--|
| 1월 중 우편 발송 (미수령자에 한해 연락주시면 이메일, 팩스 발송) | 개인 (주민등록번호) |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5% 공제 (기부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 |
| |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0%내에서 전액 공제 |

다일공동체 연말정산 안내

Q. 다일공동체에 후원한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다일공동체는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기부금 영수증은 타인 명의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법인단체 명의로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후원금 입금자명과 후원자 본인의 명목이 동일해야 합니다. (단체 명의로 입금 시 개인별 명의로 분할하여 발급 불가합니다.)

Q. 가족(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이 낸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납세자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도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월 공제를 통해 올 해 기부금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5년 이내 후원금까지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단,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으나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절약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 우편물 대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들어가시면 소득공제자료를 출력/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시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으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다일공동체 홈페이지(www.dail.org)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일공동체와 함께 한 나눔이야기

NC 다이노스의

따뜻한 밥퍼 나눔 인터뷰



밥퍼봉사가 끝나고 NC 다이노스팀과 함께

9월 14일, 밥퍼나눔운동본부에는 프로야구 퓨처스 리그에 소속된 NC 다이노스팀이 방문하여 따뜻한 나눔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을이지만 낮에는 무척 더운 요즘,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주어진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선수들의 멋진 모습에 밥퍼에 오신 어르신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밥퍼 봉사를 해주신 NC 다이노스팀과의 인터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Q1. NC 다이노스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NC 다이노스는 한국에 있는 프로야구단입니다. 저희 연고지가 두 군데에 있는데요, 1군팀은 경남 마산에 있고 저희 퓨처스 팀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오늘 밥퍼 봉사를 하러 온 팀은 고양 NC 다이노스입니다.

이 받는데요, 그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을 찾다가 교육 캠프를 기회로 삼아 밥퍼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팀에 소속된 모두가 같이하기에도 좋고 굉장히 뜻깊기도 해서요. 그런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혹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했어요. 하하.

Q2. 연습과 경기로 많이 바쁘실 텐데 특별히 밥퍼 봉사를 신청하신 계기가 있나요?

퓨처스 리그는 가을 이맘때쯤 시즌 일정이 끝나요. 시즌이 끝나면 9월과 10월에 교육 캠프라는 걸 진행합니다. 연습 경기와 훈련뿐 아니라 봉사활동과 문화생활 같은 다양한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퓨처스 리그에 소속된 선수들도 팬들에게 사랑을 많

Q3. 평소에도 나눔이나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나요? 혹시 이전에도 다른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으신가요?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지만,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유 없어서 봉사에 대한 관심은 항상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밥퍼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니 참 뜻깊은 것 같아요.



식판을 나르고 있는 NC다이노스팀

Q4. 야구와 밥퍼 봉사 중 어떤 것이 더 힘들었어요?

야구는 힘들어도 매일 항상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밥퍼 봉사는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아무래도 팀원들이 이 일을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하.

Q5. 밥퍼 봉사 이후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제가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안 계시거든요. 예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그리움 같은 게 있었어요. 오늘도 어르신들을 뵈니 제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생기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봉사'라고 하면 거창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봉사한 경험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밥퍼 봉사를 하면서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즐기고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걸 보니 저희가 즐겁게 보낸 시간이 그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Q6. 밥퍼와 다일공동체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참가하고 싶고요, 시간이 되어 저희가 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이 일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7. 마지막으로 팬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직접 와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팬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밥퍼 봉사에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밥을 어디서든 쉽게 먹을 수 있지만, 밥퍼 봉사활동으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같이 한 번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과 정성으로 밥퍼 봉사에 임해주신 NC다이노스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나눔과 사랑으로 좋은 활동 펼쳐주시길 소망합니다!

DAIL



① 어르신들께 밥을 전달하고 있는 선수들

② 밥퍼봉사중인 선수들



현 · 장 · 이 · 야 · 기

네팔 NEPAL



구샬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11학년 아이들

네팔의 교육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 대부분이 10학년까지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졸업하여 직업을 찾았습니다. 네팔 정부에서 설립한 공립학교에도 10학년까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12학년을 마쳐야 고등학교 졸업이 인정되어, 이후 대학교에 가거나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팔다일공동체에서 1:1 아동결연을 맺고 있는 아이들 중 11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는 총 열한명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비의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팔 호스스쿨



11학년에 올라가는 11명의 아이들입니다.

- | | |
|--------|------------|
| 세베나 라마 | 꺼말라 네팔리 |
| 아샤 따망 | 로사니 스테스타 |
| 수니파 거달 | 꺼비파 바르데와 |
| 데비야 구름 | 지트 바하드르 메걸 |
| 로사니 구름 | 코달라 타미 |
| 서리파 따망 | |

모두 어릴 때부터 네다일 밥퍼에서 밥을 먹으며 자란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자원봉사로 밥퍼에 나와 어린 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이 12학년까지 졸업하여 온전한 사회인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실 천사를 찾습니다. 네팔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프스쿨 장기자랑

더사인 대축제는 네팔의 최대 축제로 네팔 사람들은 이 기간에 10일 이상을 쉬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더사인을 앞두고 저희 호프스쿨 아이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마다 춤과 노래, 또 각자 할 수 있는 재주들을 준비하여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는데, 춤추는 아이, 노래하는 아이, 모사하는 아이 등 모든 아이들이 하나 이상의 재주를 가지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며 아이들이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점점 밝아지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을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표현해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네팔의



찬양하는 아이들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호프스쿨 아이들은 대부분 아동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모두 후원회원님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네팔을 후원해주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AIL**

 네팔 다일공동체 +977-98494-58330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국제사업실\)](#)

11학년에 재학중인 아이들





목재 나르는 아이들

필리핀

PHILLIPHINES



류주형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 Hinay hinay. Pero ayaw pagpahulay!"
천천히. 하지만 쉬지 말고.

까만씨 공사 중에는 하루걸러 한번 꼴로 자재가 배달됩니다.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저렴한 곳을 찾아 직접 주문을 넣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재 운반이 꽤나 신경 쓰이는 일 중 하나입니다.

증축 현장이 마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다 보니 목재 하나 운반하는 것만 해도 마을 광장에서부터 현장까지 굽이굽이 좁은 대나무 다리 길을 한참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안 그래도 쓰러져 가는 주변 집들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옮기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일꾼들 입장에서는 맡겨진 일을 하다가 자재가 도착하면 중간에 나가서 운반을 해 와야 하는 터라 힘들던 차에 생긴 쉬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는지 한번 나르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참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늦어지는 공사 기간에 속이 타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중간 중간 망중환을 즐기는 것입니다.



완성을 앞둔 커뮤니티센터

빨리 빨리 라는 말은 이미 너무 많이 해서 진작에 악발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부터는 정말 특공대처럼 팀워크를 맞추어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터라 급한 마음에 저도 목재를 하나 올려 댔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빨리 빠리를 외치려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한 템포 쉬 후에 말했습니다.

"Hinay hinay. Pero ayaw pagpahulay!"

"천천히 천천히. 하지만 쉬지 말고!"

갑자기 힌나이 힌나이 하니 일꾼들도 기분이 좋은지 모두 힌나이 힌나이 하며 목재를 나릅니다. 여럿이 줄지어, 천천히 쉬지 않고 꾸준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 100개가 금방 옮겨졌습니다.

오늘은 마을 꼬마들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말 안 듣는 가브리엘 녀석이 선두에 섰습니다. 예전부터 자재만 오면

주변에 얼쩡거리는 것을 위험하다고 못 나르게 했지만, 이렇게 다닥다닥 매달려 있는걸 보니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오늘 이 아이들이 무거운 목재 다섯 개를 날랐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하지만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서두르지 않고 속도를 맞추고 마음을 맞추며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입니다.

DAJL

 필리핀 다일공동체 +63-927-560-7346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국제사업실)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중국다일공동체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

훈춘시 민정국 아동 복리원에 다일어린이집을 이양한 후에도 중다일 가족들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이집 이름도 바뀌고 현재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생일이면 함께 모여 축하파티도 하고, 졸업한 아이들도 계속해서 응원과 후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중국 다일공동체를 사랑해주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후원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아동들의 일대일 결연 후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물질적, 정서적인 지원을 위해



전 다일어린이집 현판

중다일은 현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훈춘시 복리원 측에서도 중국다일공동체의 지속적인 협력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중다일을 응원하고 후원해주신 여러분의 사랑으로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새롭게 중국 다일공동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중다일은 훈춘시 복리원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이제 막 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에 대한 취업 및 정착지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더 나아가서는 훈춘시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 그리고 20년 전부터



김문녀 생일잔치



전 중다일 외경 사진

오랜 시간 품어온 두만강 건너 북한 아동들을 위한 사업들에 이르기까지, 더욱 지경을 넓혀 많은 곳에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중심의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중국 훈춘을 넘어 두만강 건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이르기까지, 저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 다일어린이집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훈춘시 다일 애심협회(사단법인)를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중다일의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중국 다일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1997년, 다일공동체는 굶주린 북한 땅을 마음에 품고 훈춘 땅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고아원 사역이 주어진 것 같고 이에 순종하여 걸어온 지 어느새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엿하게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지원을 받으며 합법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중국다일공동체 20년, 스무 살이 되어 새롭게 일어서는 중다일에 많은 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중국뿐 아니라 세계 속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중다일은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주세요. 중다일 가족들의 진심과 사랑이 여러분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dail**

 중국 다일공동체 +86-433-753-8004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백두산 등반 기념 단체사진

캄보디아 CAMBODIA



고세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지부장

프놈펜 지부의 이동 밥퍼와 빵퍼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의 프놈펜 지부는 도시 곳곳에 있는 빈민들을 위한 밥퍼, 빵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주변에 거주하는 빈민들 뿐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이나 거리에 있는 빈민들에게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이동 밥퍼도 함께 진행하며 2017년부터는 대한적십자사 헌혈기부권 사업으로 지정되어 매일 400개의 빵을 주 5회 이상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빵퍼에서 갓 구워낸 따뜻한 빵

이동 밥퍼를 하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빈민들이 있는 곳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인데, 이곳에 있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밥과 빵을 나누려면 이동 밥차가 꼭 필요했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칠나에 센터에 자주 봉사 오시는 봉사팀 중 교민 어머니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양손가득사랑을” 팀과 함께 프로젝트 모금함을 진행하기로 하고 “같이 가치 with kakao”에서 이동(톡톡이)밥차 구매를 위한 모금을 6월 30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반응도 뜨거워서 한 달여 만에 모금이 조기 완료되었고, 고대하던 이동 밥차를 드디어 제작,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동밥퍼 차량 앞에서 “양손가득사랑을” 팀과 함께





- ❶ 간식세트를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
- ❷ 선물을 나누고 있는 고세인 지부장과 봉사팀
- ❸ 쓰레기 매립장 지역 이동밥퍼와 빵퍼



그동안은 이동 밥퍼를 할 때마다 사람이 가득 탄 경차 한 대에 밥과 빵까지 싣고 다니느라 차에 탄 사람들이 각자의 다리 위에 빵 박스와 밥통을 올려놓고 먼 거리를 오가곤 했습니다. 또 일년 365일 내리쬐는 캄보디아의 강한 햇빛에도 흔한 파라솔도 하나 없이, 테이블 대용으로 커다란 항아리 위에 판자를 깔아 그 위에 빵을 펴놓고 나누거나 맨바닥에 비닐을 깔고 나누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 밥차 삼면에 설치된 문을 펼치니 그늘이 생기고 차량 바닥이 테이블로 변하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밥차가 생긴 이후 첫 이동 밥퍼를 하던 날 동네잔치처럼 풍성한 나눔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놈펜 제일교회에서 요청하여 준비해 주신 간식세트와, 빵퍼에서 갓 구워낸 따뜻한 빵, 밥퍼에서 만든 환상적인 볶음밥까지 풍성하게 준비된 음식들을 나누었는데 선물을 받는 모든 이웃들은 풍성한 나눔에 기뻐하고, 더운 날씨에 열심히 봉사한 “양손가득사랑을” 봉사팀과 스태프들은 나눔의 기쁨에 맘이 비 오듯 흐르는 와중에도 기쁘고 밝은 표정으로 밥과 빵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DAJL**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855-17-764-440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베트남 VIETNAM



이애리 베트남 다일공동체 원장



나눔이 무르익는 베트남의 추석, 종투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곡식을 수확하는 계절인 가을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추석은 '종투'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일 년 열두 달이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종투'는 사실 한국의 추석과 의미가 같지는 않고, 어린이날과도 비슷합니다. 이날 베트남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마음이 깃든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주변 분들에게 월병(Moon Cake)을 나눔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월병을 나눠주고 계신 참조은광성교회



참조은광성교회의 성도님들



LOTTERIA의 풍성한 월병나눔

참조은광성교회와 LOTTERIA의 풍성한 월병 나눔

연일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가위를 맞이하여 '참조은광성교회'에서 눈과 입을 풍성하게 채워줄 월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주신 400개의 월병덕분에 면흥마을부터 빈흥마을까지 많은 주민들과 풍족하게 나눌 수 있었고, 받는 분들의 마음 또한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번 월병뿐 아니라 매월 맛 좋고 영양가 좋은 밥을 늘 준비해 주시는 '참조은광성교회'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급식비와 봉사에 참여해 주고 계신 LOTTERIA에서도 월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LOTTERIA에서 준비해 주신 월병은 밥퍼 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면흥적십자 아주머니들과 면흥인민위원회, 호치민적십자 관계자분들께 선물하였습니다.

함께라서 더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더욱 따뜻한 내일이 기대됩니다.

'월병'은 '보름달 모양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동그란 월병을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온정의 릴레이가 이어진 베트남의 추석이었습니다.

베트남에 이어지는 사랑의 릴레이 소식을 바다 건너 한국, 한국을 넘어 땅끝까지 전달해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DAIJ**

 베트남 다일공동체 +84-9038-20918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국제사업실\)](#)



중학생이 되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결연아동 꿈나무들과 함께

우간다 UGANDA



변창재 우간다 다일공동체 원장

“우간다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아프리카 우간다'입니다!

2012년 4월 24일 아프리카 탄자니아 땅을 처음 밟고
2015년 6월 29일 까지 40개월을 사역한 저희 가정이 한
국에서 25개월을 지내고 2017년 8월 1일, 새로운 사명실
현지인 우간다 다일공동체에 도착했습니다.

우간다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디 아민?' '엔테베 공항사건?' '공포 정치?'

내전과 같은 아픔의 역사를 걸어온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저희가 출국 전에 만났던 많은 분들이 우간다 하면 아무래
도 아픔에 대한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는 것을 볼 수 있
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아픔의 역사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빅토리아
호수의 풍부한 수자원과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 아
름다운 르웬조리 산(Mt. Rwenzori), 그리고 야생동물이
뛰어다니는 대평원 등 개발이 되지 않아 오히려 빛을 발하
고 있는 빼어난 자연경관이 우간다에는 가득합니다. 하지
만 그 어떤 것도 사람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
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결국 사람을 생각
하며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저희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우간다와 아프리카를 더
욱 깊이 삶으로 배워가며 이 소식을 통해 많은 분들과
나누고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경 원장님, 변용수 부원장님의 아름다운 발걸음!”

아프리카(우간다, 탄자니아)에서 4년, 필리핀과 캄보디아까지 총 10년의 해외분원 사역을 마무리하신 변용수, 김혜경 선교사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동안 해 오신 사역을 인수인계 받으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간다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특히 아이들을 섬기고 보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두 분의 노력이 곳곳에 스며 있고, 묻어나 있음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키티코, 키고 초등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도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편지들, 함께 하셨던 한국 선교사님들과 교민분들의 눈물, 작별의 순간을 너무도 아쉬워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통해 두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어떤 발걸음을 걸어오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을 되돌아 볼 때, 말라리아와 맹기 한 번 걸린 적 없고, 크게 아팠던 적도 없고, 접촉사고 한 번 난적이 없고, 건강하게 맑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두 분의 고백에 함께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비해 주시고 인수인계 작업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새로운 업무현장인 묵안리 다일공동체 DTS 훈련원에서도 지금처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것을 믿고 함께 응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웨바레노(진심으로 감사합니다)~~~. **dajl**



변창재 원장, 이현신 부원장, 키티코 초등학교 1학년과 함께

우간다 다일공동체 +256-77107-2382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우간다 아이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김혜경 원장님, 변용수 부원장님





후원자님, 메리 크리스마스



거북등을 타고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후원자님, 소풍 잘 다녀왔어요!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

"심바다!"

호프클래스 4기 학생들이 동물원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쿤두치 지역 대부분의 아이들은 쿤두치 채석장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호프클래스에서 공부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채석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돌을 깨거나, 집에서 동생들을 돌보거나, 야채바구니를 이고 동네를 돌며 장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센터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바하리동물원이 있지만, 모두들 난생 처음으로 동물원에 와 본 것입니다.

사자(심바)도 보고, 각종 하이에나와 원숭이, 거북이, 기린과 플라밍고, 독수리와 뱀도 구경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동물들이지만 아이들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기린에게 직접 나뭇잎도 먹이고, 큰 거북이 등에는 직접 오르기도 합니다. 원숭이들에게 바나나 껍질을 주니 너무나 잘 먹는 것이 재미납니다.

잠깐 잠깐 휴식시간에 친구들과 타는 시소, 그네와 미끄럼틀도 너무 신납니다.

점심도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먹으니 소박한 먹거리도 진수성찬 같습니다.

점심식사 후 4개조로 나눠서 하는 게임은 이겨도 좋고 져도 좋습니다. 단체 줄넘기는 비록 2개를 넘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줄다리를 할 때는 이를 악물고 모든 힘을 동원해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서였던 이어달리기에선 넘어지기도 하고 바톤을 놓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참 예쁩니다.

호프클래스 4기 학생들은 이제 10월중에 봄방학을 갖고,

12월 초에 마지막 졸업시험을 치른 뒤 중순쯤에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근처 초등학교인 음통가니와 음타쿠자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편입학 구두시험을 치르고 내년 1월부터는 편입학하여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신나는 소풍도 다녀오고,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탄다 일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후원자님들 덕분입니다.

지난 1년간 기도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후원자님들께 우리 아이들과 스태프들이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DAIL**

☎ 탄자니아 +255-629-426-641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 ① 원숭이를 구경중인 아이들
- ② 호프클래스 소풍 단체사진



미국 AMERICA



김고운 미주 다일공동체 원장

천사가게 JUST ORANGE 의 "Only JESUS, Only Love"

"오직 예수! 오직 사랑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나눔과 섬김의 삶을 묵묵히 걸어 오고 계신 천사가게(Angel Donor) JUST ORANGE 의 유재준 장로, 김은주 권사님 내외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2003년, 우연히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미국 네슈빌 에서 열린 최일도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며 다일 사랑의 시작이었다고 두 분은 고백하십니다.

오래전 대광고등학교의 다일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두 분은 다일공동체에 깊은사랑과 신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일공동체 1,2,3단계 영성수련을 통해 받은 은혜를 다른 상하고 아픈 이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다일공동체 1단계 영성 수련 '아름다운 세상 찾기' 50기의 기장으로 섬겨주시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물질과 기도 후원뿐 아니라 수련회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청량리 다일교회의 주방봉사까지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섬겨 주시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틀란타의 미주다일공동체가 위치한 지역에서 여전히 물심양면으로 큰 힘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탄자니아 빈곤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물질과 기도로 사랑을 전해주고 계신 두 분. 향후 100여명의 아동들을 가슴으로 품을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시며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사랑 때문에! 라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는 두 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DAJL**



- ① 천사가게 "JUST Orange"
- ② 천사회원이 되어 주신 김은주 권사님

미주 다일공동체 +1-770-813-0899

문의 02-2212-8004

후원 관련 **연결음 후 1번(후원관리실)**

내용 관련 **연결음 후 6번(국제사업실)**

밥퍼 나눔운동본부

BABFOR Sharing Movement



최홍 밥퍼나눔운동본부 부분부장

“밥퍼의 고마운 후원자님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은 더위를 피해 새벽부터 모여든 밥상공동체 가족들이 날마다 밥퍼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밥새 무더위로 잠을 이루지 못해 지쳤던 분들도 새벽에 문을 여는 밥퍼에서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퍼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배식되는 이른 점심 한 그릇에 힘을 얻고 사랑을 채워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밥퍼에서는 날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기적에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 중 올여름 유난히 깊은 감동을 전해준 후원자 세분이 계셔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리지는 못하지만 밥퍼의 기적은 모든 감동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손길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감동 후원자 한촌설령탕

초복과 중복의 무더위에 지쳐 있는 어르신들께 보양식으로 설령탕을 후원해 주신 한촌설령탕! 더불어 남한과 북한이 함께 평화롭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개최된 제 3회 밥 피스메이커 행사에도 선뜻 설령탕을 후원해 주신 덕에 더욱 풍성한 소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보내 주신 설령탕을 드신 많은 어르신들은 한여름의 뜨거운 더위를 이기고 지친 몸을 일으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언제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겠다는 한촌설령탕이 더욱

한촌설령탕에서 제공해주신 따뜻한 설령탕

발전하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 후원자 한촌설령탕 최고!

두 번째 감동 후원자 MTM 대표 남민우님

초복과 중복에 따른 한설령탕으로 더위를 이겨낸 밥상공동체의 어르신들은 말복에 꼭 삼계탕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어르신들께 어떻게 하면 삼계탕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도움 주실 분들을 열심히 찾아 보았지만 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밥퍼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12년 전 최일도 목사님의 강연을 들은 후로 매년 밥퍼에 쌀을 후원해 주시는 MTM 남민



MTM대표 남민우님과 함께

우 대표님이셨습니다. 올해도 50만원에 해당하는 쌀을 후원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통화 중 마음에 감동이 되어 어르신들이 말복에 삼계탕을 너무나 먹고 싶어 하신다는 사정 이야기를 드렸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얼마가 들든지 관계없이 모든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해드리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풍성한 말복 기념 삼계탕 나눔 잔치가 되었는지... 감동 후원자 MTM 대표 남민우님 최고!



JT친애저축은행 윤병목 대표이사님

세 번째 감동 후원자 JT친애저축은행 윤병목 대표이사님

밥퍼에는 다양한 기업과 단체, 학교, 교회, 가정, 개인이 봉사자로 오셔서 몸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섬겨주십니다. 밥퍼가 29년째 1,000만 그릇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찾아와서 섬겨주시는 분들 덕분입니다. JT친애저축은행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봉사를 와주시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대표이사님이 함께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현재 밥퍼에서는 밥을 나누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밥을 먹으러 오는 분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떡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떡퍼에서는 누룽지를 만들어 얻게 된 수익금으로 어르신들을 도우려 하는데, 고가의 누룽지 기계를 마련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병목 대표이사님께서서는 기꺼이 사비를 털어 누룽지 기계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사랑의 나눔을 몸소 실천해 주시는 JT 친애저축은행 윤병목 대표이사님은 어두운 곳에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이 시대의 천사입니다. 감동 후원자 JT친애저축은행 윤병목 대표이사님 최고! **d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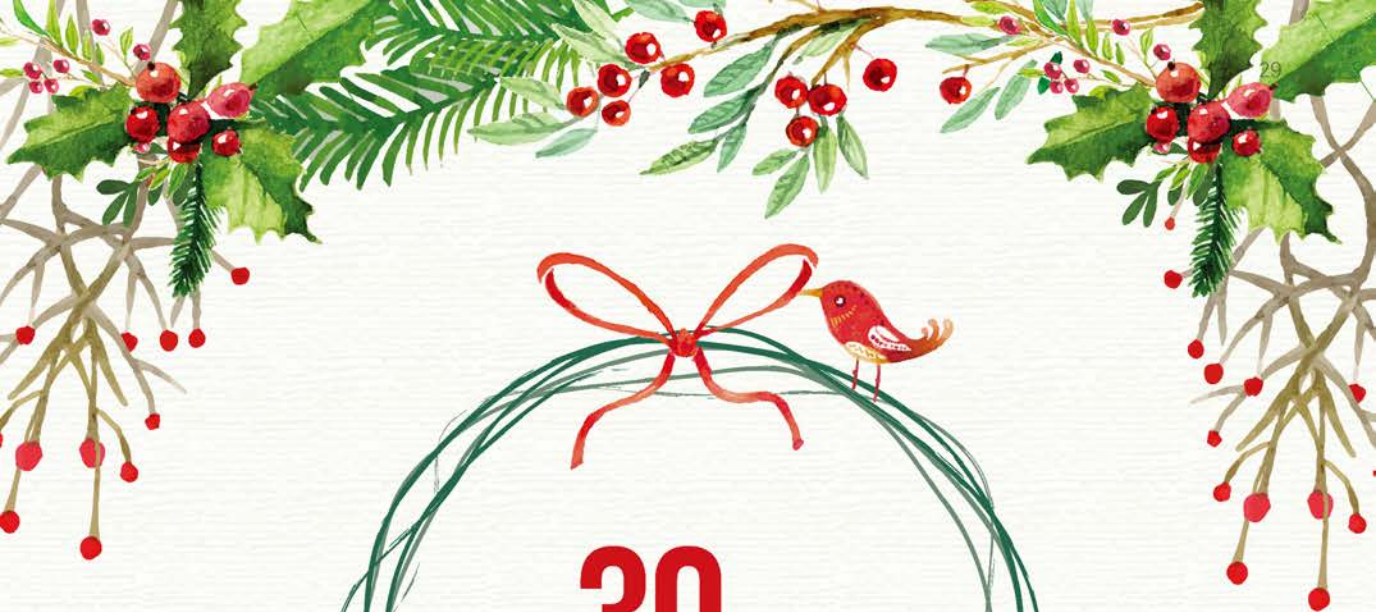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12월 25일, 사랑의 기적을 기다립니다!

다가오는 12월 25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밥퍼 30주년 거리성탄예배가 열립니다. 밥퍼의 거리성탄예배에서는 사랑의 방한복 키트를 노숙자와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선물합니다. 3,000명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성탄 선물을 전해주시길 분들을 기다립니다! 키트 1세트에는 방한복과 도시락,물,간식,햇떡,장갑,양말이 포함되어 있으며, 5만원입니다. 3만원으로 방한복만 별도 후원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올해 성탄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새로운 감동과 사랑의 기적들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은행, 630-007015-521, 다일공동체/ 밥퍼 02-2214-0365)



거리성탄예배 후 어르신들께 성탄선물을 전달하는 모습



30TH
거리성탄예배

2017
12월25일
11:00 a.m.

밤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DAIL ANGEL'S HOSPITAL DAIL LITTLE HEAVEN



임정순 다일작은천국 원장



언약 반지 교환식

내 생애 마지막, 아내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이선구(가명)님은 과거 건설업을 운영하며 사랑하는 아내, 두 쌍둥이 아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는 이 가정에도 찾아왔고, 결국 회사와 집을 모두 잃게 되자 이선구님은 일용직을 얻어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가정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힘겹게 지켜오던 가족은 결국 기초생활수급을 위해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족을 떠나보내고 노숙을 하며 생활기에 시달리던 이선구님은 갑작스럽게 악화된 건강에 찾아간 병원에서 전립선암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요양원에서 입소생활을 하고 있던 아내마저 당뇨 합병증으로 점점 시력을 잃어 갔습니다.

현재 이선구님은 다일작은천국에 입소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힘든 항암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긍

정적으로 생각하고 웃음을 보이려고 노력하십니다. 보통 노숙인 상담 중에 본인의 과거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는데, 이선구님은 자신의 사연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선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나들이에 사용된 웨딩카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에서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위기가정

지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다일작은천국에서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이선구님의 사연을 홍보하였고,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약 330만원이라는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① 서약중인 이선구 부부 ② 언약식 후 떠난 강화도 나들이

이번 프로그램은 다일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캠페인인 만큼 뜻 깊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준비했습니다. 이선구 님과 부인 이금화(가명) 님은 언약식 중에 눈물을 보이시기도, 미소를 짓기도 하였고, 이선구 님을 곁에서 지켜봐온 다일작은천국 가족들 역시 두 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했기에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뒤, 두 분은 다일공동체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두 분의 모습에 함께 자리한 모든 이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장 특별한 언약식이었습니다. **dajl**

 작은천국 02-2213-8004

“살아 있는 동안 마지막 꿈이 있다면, 나 때문에 힘들게 지냈던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다.” 고 하신 이선구 님의 소망을 따라, 다일작은천국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 달여간 계획해왔습니다.

9월 19일 다일작은천국 3층에서는 다일공동체 최일도 이사장님의 주례로 이선구 님 부부의 특별한 언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편지를 낭독한 후에는 언약반지 교환식을 가졌고, 보통의 언약식과 다를 것 없이 많은 하객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두 분이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강화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 중 여행이 시작되는 20일에는 다일작은천국 입소자분들이 다 함께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강화도 석모도 수목원에 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맛있는 점식식사도 하고, 두 분의 언약식을 다시 한 번 축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화도에서 다일작은천국 가족들과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 am . a . happy . volunteer

밥퍼 나눔운동본부 BABFOR Sharing Movement



오륜교회 홀리콰이어

오륜교회 홀리콰이어 성가대팀의 자원봉사자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성가대에서 여러 목소리를 하나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찬양으로 노래하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두 한결같이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밥퍼 어르신들 하루 배식비 300만 원에 30만 원을 더 보태서 넘치도록 후원해주신 오륜교회 홀리콰이어 밥퍼 자원봉사팀 최고입니다!



4050 수도권 산악회

밥퍼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무상급식을 합니다. 하루에 700~800명이 매일 식사를 합니다. 이러한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려면 4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데 한 달에 서너번 정도는 봉사자가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그 때마다 달려와서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천사같은 자원봉사자들이 바로 4050 수도권산악회입니다. 밥퍼의 수호천사와 같은 지킴이요, 어르신들의 밥상을 지켜드리는 4050 수도권 산악회가 최고입니다!



건국대 사회복지과 평생교육원 영어동아리

건국대 평생교육원의 영어동아리 자원봉사자들은 올 해부터 시작된 새내기 자원봉사자팀입니다. 그러나 밥퍼 봉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변두영 지도교수님께서 매번 함께 오셔서 이끌어주시는데 팀원들은 우리 교수님은 밥퍼 전도사 같다고 할 만큼 교수보다도 자원봉사자로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모두 하나 되어 섬기는데 뜨거운 열정을 보이는 특별한 자원봉사자들인 건대 영어 동아리 최고입니다!

작은천국 LITTLE HEAVEN



청량고등학교 이충협 학생

청량고등학교를 다니는 이충협 학생은 다일작은천국에 처음 봉사활동 온 친구입니다. 처음 봉사할 때는 몰랐지만 어떤 일을 맡겨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봉사에 임합니다. 또한 어떤 봉사활동을 시켜도 마무리를 잘 해내는 능력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멋진 이충협 학생! 계속해서 앞으로 다일작은천국에 봉사하러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쌍용양회 단체팀

쌍용양회 직원분이 다일작은천국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셔서 다일작은천국에 봉사 오시는 쌍용양회 직원들은 언제나 정성어린 선물을 준비해 오십니다. 이번에도 입소자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바나나와 초코파이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오셔서 깔끔하게 청소도 해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며 한편의 천사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봉사를 오신다고 하십니다. 쌍용양회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취경공고 1학년 단체팀

취경공고 학생들이 저희 다일작은천국을 봉사를 왔습니다. 취경공고는 다일작은천국에 자주 봉사 오는 단체입니다. 봉사를 처음 시작한 어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날 때도 다시 봉사 오고 싶다는 말을 배우고 간다는 학생들의 말에 직원들이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다음에 언제든지 봉사오세요! 다일작은천국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답니다.

천사병원 ANGEL'S HOSPITAL



캄보디아 볼런투어 의료봉사팀

매년 여름이면 다일천사병원은 자원 의료봉사팀과 함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섬기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 작년 네팔에 이어 올해도 12명의 다일천사병원 의료봉사팀은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총 5박 7일의 일정동안 고아원과 캄보디아 주정부 사회부 직원들의 건강을 검진하고, 프놈프롬 샘물유치원, 오마누의 지역 주민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극단 구십구도(대표 홍승호) 바자회를 통한 후원금도 전달하였습니다. 뜨거운 햇살보다 따스한 치료의 광선이 그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해 봅니다. 천사여러분들~ 재능기부로, 또 후원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팔 NEPAL



차은경 님

영락교회의 차은경님이 2주간 봉사활동을 위해 네다일에서 방문하셨습니다. 밥퍼와 호프스쿨을 섬기며 의미있는 시간이 되어 너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의 10년근속으로 2주간 휴가를 받으셨는데 봉사활동을 위해 사용하시니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베트남 VIETNAM



밥퍼29팀의 귀한 나눔의 현장!

2015년 9월부터 지금까지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밥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밥퍼29팀입니다. 항상 필요를 채워주시는 밥퍼29팀 덕분에 매일같이 하는 설거지도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밥퍼29팀에서 선물해 주신 고무장갑 덕분입니다^^ 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밥퍼29팀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밥퍼 29팀 최고야~~~~

캄보디아 CAMBODIA



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9/12) - 씨엠립

경남지역 저소득계층의 자립과 생활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 선생님들께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방문하여 주시었습니다. 경남 각 지역에서 직접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 만큼, 누구보다 성심껏, 굵은 땀방울을 흘려가며 밥퍼 활동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며 함께 눈을 흘려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도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기대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봉사팀 - 프놈펜

말레이시아 기업인과 교인들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봉사팀이 봉사를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방문 및 봉사를 하셨는데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밥퍼 사역을 보고 놀라워하셨고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밥퍼나눔과 소식을 들으시고는 더욱 놀라워하셨습니다. 쌀 1톤의 후원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과 봉사 참여를 약속하셨습니다.



박은수 형제님(9/1~9/2) - 씨엠립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와 마음으로 이어진 오랜 동역자, 박은수 형제님께서 먼 미국에서부터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어머니, 그리고 친구분과 함께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이들과의 치과 진료 의료봉사를 통해 많은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인근 지역 마을 가정방문을 비롯하여 아이들을 위한 밥퍼봉사라도 함께 맘 흘려주셨습니다. 항상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해주시는 형제님, 다시 방문하여 주실 것을 뜨거운 기도로 함께 약속했습니다!



양손가득사랑을 - 프놈펜

양손가득사랑을 팀과 프로젝트 모금으로 이동밥차를 제작구매하고 처음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이동밥퍼를 다녀왔습니다. 밥퍼에 필요한 통도 후원해 주시고 더운 날씨에도 밝은 표정으로 봉사에 임해주셨습니다.



옥토교회 - 프놈펜

한국의 옥토교회에서 프놈펜 지부에 방문하여 밥퍼 및 위생봉사를 하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재료를 다듬고 한 끼 식사를 준비하고 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머리를 감기고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가실 때는 밥퍼 배식비도 후원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프놈펜제일교회 - 프놈펜

3개월에 한 번 씩 봉사오시는 프놈펜 제일교회에서 봉사 오셨습니다. 500세트의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밥퍼, 빵퍼, 위생 이마용 봉사까지 자주 오시기에 설명이 없어도 손발이 척척 맞는 팀워크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아름답게 해 주시고 밥퍼 배식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홍콩감리교회 - 프놈펜

홍콩인과 미국인들로 구성된 홍콩감리교회에서 2주간 봉사를 오셨습니다. 벽화 그리기 봉사와 센터 벽면 페인트칠, 복도공사, 밥퍼 나눔, 이발, 위생봉사까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를 하시고 관련 비용 및 센터 음향장비 비용등 많은 후원에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필리핀 PHILLIPHINES



이성일 장로님

까비때 다일공동체를 위해 수년간 후원이사로 섬겨주시고 매주 찾아오셔서 몸소 봉사하시고 격려해 주시던 이성일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다일유치원 명예 원장 위촉장을 전달하였는데요, 사실 세부 다일공동체 개척으로 인해 현지시스템들이 빈 자리를 메꾸며 살림을 꾸려 나가야하는 어려운 자리임에도 아무 대가 없이, 또 보상 없이 섬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담스러운 부탁임에도 선뜻 수락해 주시며 이왕 하는 것 대충 하지 않으시겠다고 꼼꼼히 하나하나 챙기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든든한 마음입니다. 다일 그대의 자랑이듯 그대 다일의 기쁨이여라!!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관리실 02-2212-8004

| | |
|--|---|
| <p>국내신규후원회원 2017.08~2017.09</p> | <p>(사)과학기술인공제회, 5여전도회, 8여전도회, 강용석, 강주현, 강중구, 감지민, 광역사, 권미진, 그룹홀, 기신서, 김경미, 김경순, 김경하, 김경호, 김경화, 김공자, 김광열, 김기현, 김동준, 김명순, 김명원, 김미선, 김민성, 김복희, 김상엽, 김선영, 김선용, 김선태, 김성훈, 김순옥, 김승환, 김영숙, 김옥희, 김완수, 김홍현모, 김우영, 김은미, 김은영, 김은주, 김창규, 김정섭, 김정운, 김종숙, 김종원, 김주연, 김주영, 김지영, 김지영, 김창수(생일), 김창연, 김철자, 김태근, 김태연, 김태형, 김학빈, 김현미, 김현수, 김현수김홍현모, 김호정, 김희서, 남현숙, 대한예수교장로회도화교회, 동천교회, 마슬기, 무형교회, 문종일, 민선영, 박명환, 박수현, 박연희, 박윤희, 박정환, 박지혜, 박현정, 박혜원, 박홍수, 사단법인 시민, 서성렬, 서애진, 서유희, 성지은, 손정일, 송윤지, 송은영, 순영지은혜인민옥, 신광철, 신반포중학교, 신봉숙, 신옥순, 신월동소망교회, 신한56945769, 안서연, 안순혜, 안연재, 안인숙, 안형규, 양영남, 연합여전도회, 염미숙, 염선영, 오영란, 온리플라워, 우광임, 유복순, 유성연, 유원준, 윤병목, 윤양미, 윤재도, 윤진선, 윤찬희, 이광용, 이귀선, 이금자, 이다정, 이대MBA봉사단, 이동민, 이동은, 이동준, 이명남, 이명진, 이명혜, 이병수, 이봉순, 이서준, 이성준, 이소영, 이수정, 이숙희, 이시영, 이원진, 이윤정, 이은숙, 이점숙, 이정순, 이정은, 이정태, 이지훈미카엘라, 이진영, 이해규, 임도섭, 임문희, 임서현, 장말선, 장옥윤, 장하주, 장현식, 정경숙, 정수신, 정용화팬클럽, 정유진, 정진호, 젠디, 조다솔, 조미선, 조봉순, 조연민, 조영미, 조용수, 조용환, 조운성, 조위자, 조현주, 채호정, 천부제일교회, 최기순, 최문수, 최미영, 최성희, 최승인, 최애자, 최원철, 최윤선, 최윤정, 최준민, 최하음, 최한석, 최혜림은준, 추교원, 하루리, 하태건, 한영수, 함창규, 현대자동차(주), 홍기원, 홍성분, 홍장권, 홍현희, 황미란, 황보순옥, 황태희</p> |
| <p>밥퍼 나눔운동본부 2017.8.16~2017.10.15</p> | <p>후원물품 / jt(애저축은행(폼보드,누룽지기계), 길문호(쌀), 김동미(쌀), 농업회사한만두(만두), 도유(명란무침), 동의보쌈(김치), 드림재단(빵), 뒤뚱뽕(빵), 마마무팬클럽(쌀), 무명(휴대용가스버너,쌀,보리), 삼오종합식품(된장,고추장), 서울우유(우유), 석춘자(쌀), 섬기는교회(콩나물), 시림(명란무침), 양명숙(고추가루), 유원미트코리아(고기,잡채), 이상집(쌀), 이향미(명이나물), 장수보쌈(김치), 절집(쌀), 정용화팬클럽(쌀), (주)더플랜잇(마요네즈), 캐논코리아(쌀), 트루베니스(손뜨개,모자), 한독환경(방역), 한전산업개발(종이행주), 한촌설령탕(설령탕), 해창종합포장기계(진공포장기), 헤브론스타(떡), 홍명희(쌀)</p> |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 | |
|---|--|
| <p>네팔 다일공동체 2017.8.16~2017.10.15</p> | <p>후원금 / 김용덕, 망원교회, 선한사마리아인교회, 순천은성교회, 심경화, 차은경 후원물품 / VS Niketan 학교 (비스킷, 초콜렛)</p> |
| <p>필리핀 다일공동체 2017.8.16~2017.10.15</p> | <p>후원금 / MJ 아카데미, 김금자, 김혜경, 류호열정명해, 시부 하나로 교회, 예스투어 심재훈 대표, 이명현, 이모세, 이형제민명회, 임희자, 정찬수, 한성희 후원물품 / 박광수(물탱크, 선풍기), 시부 하나로 교회(스피커, 램프, 전자피아노, 빔프로젝터), 이성일(의류)</p> |
| <p>캄보디아 다일공동체 2017.8.16~2017.10.15</p> | <p>후원금 / 같이의 가치, 군산시청, 권영애(총성교회), 극단99도, 김소은, 다일천사병원, 대박, 무명(중국), 무명, 말양사포교회,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서귀포정방라이온스클럽, 손귀자, 손병윤, 열방교회, 옥도교회, 유숙, 총성교회, 카도, 프놈펜제일교회, 한국스카우트 연맹, 홍공교회 후원물품 / 강병두(학용품, 기자재), 군산시청(의류), 김정숙(의류), 다일천사병원(의약품), 말레이시아 봉사팀(식료품), 무명(식료품, 의류, 학용품),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음악용품), 성지송학중학교(의류, 잡화, 학용품), 손귀자(식료품, 의류, 잡화), 양천구청(생필품, 식료품, 의류, 잡화, 학용품), 영주복지관(생필품), 전북 동화중학교(학용품), 프놈펜 제일교회(생필품), 하나투어(생필품, 잡화)</p> |
| <p>우간다 다일공동체 2017.8.16~2017.10.15</p> | <p>후원금 / 김혜경</p> |
| <p>베트남 다일공동체 2017.8.16~2017.10.15</p> | <p>후원금 / LOTTERIA, A PLUS, NAHAL, POSCO DAEWOO INTERNATIONAL, 권민혁님, 기업은행, 모금함, 법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아리랑학학, 아산상선, 오희승님, 진해서부교회, 참조은광성교회, 호치민중앙교회 후원물품 / 법퍼29팀, LOTTERIA,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서은주님, 참조은광성교회</p> |
| <p>중국 다일공동체 2017.8.16~2017.10.15</p> | <p>후원금 / 김성재(Obey & Praise), 김연수, 김철, 김학용, 다일졸업생 모임(2회), 서송림, 최정순, 천은영, 훈춘 한인교회 후원물품 / 한해연(아동간식)</p> |
| <p>탄자니아 다일공동체 2017.8.16~2017.10.15</p> | <p>후원금 / 서울가든, 이창엽, 이해명, 최승실 후원물품 / 뷰티플마인드(빵800개, 주스40박스)</p> |
| <p>미주 다일공동체 2017.8.16~2017.10.15</p> | <p>후원금 / Brent W. Jones, Choong Kim, Joung Ja Chang (장정자)</p> |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32

| | | | |
|------|--------------------------|---|-------------------|
| | 만원의 행복(월 1만원) |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 |
| 정기후원 | 1:1 해외아동결연 (월 3만원) |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맺어 아이들의 양육을 돕고 꿈을 키워주기 위한 후원입니다. | |
| | 천사기업(월 10만원) | 기업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돕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후원입니다. | |
| | 천사교회(월 10만원) | 교회가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후원입니다. | |
| 일시후원 |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 다일천사회원이 되어 국내외 다일공동체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입니다. | |
| |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 다일평생천사회원이 되어 설곡산 다일공동체 프로젝트 및 국내외 다양한 다일 사역을 지원하는 평생가족 후원입니다. | |
| 후원계좌 | *예금주 : 다일공동체* | sc제일은행 | 150-10-012464 |
| | | 국민은행 | 010-01-0619-487 |
| | | 기업은행 | 017-033086-01-013 |
| | | 농협 | 351-0741-3770-13 |
| | | 신한은행 | 140003287625 |
| | | 우리은행 | 151-05-001902 |
| | | 우체국 | 010983-01-001609 |
| | 하나은행 | 214-890006-95604 | |
| | *예금주 : 다일작은천국* | 우리은행 | 1005-801-848969 |

미주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International Swift code (한국 및 외국에서 송금시) : BOFAUS3N
 Domestic ABA code (미국내 타주에서 송금시) : 026009593
 Routing # (미국 조지아에서 송금시) ; 061000052
 은행주소 : GA7-914-01-01, 2608 Pleasant Hill Road Duluth, GA 30096
 Tel: 678-323-0222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계좌번호 : 334040926776

(미주에서 후원하신 후원금은 미주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후원계좌

Td Canada Trust Bank
 Account No : 5222930
 Transit No : 13542
 Inst. No : 004
 OM M6N 4×7, CANADA

Account Name : Dail Community of Canada Pay to.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 만원의 행복
월 1만원 _____ 구좌
- 일대일아동결연
월 3만원 _____ 명
- 기타
월 _____ 원
- 천사기업
월 10만원 _____ 구좌
- 천사교회
월 10만원 _____ 구좌

일시후원

-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후원회원 정보

이름 _____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연락처 _____ SMS수신동의 이메일 _____ Email수신동의

주소 _____ 우편물수신동의

CMS 자동이체 동의서 (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희망일 5일 15일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 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 주소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fax 02-2243-8005 다일공동체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다일공동체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밥퍼 나눔운동본부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설곡산 다일공동체

12471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번지
Tel.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7-764-440

중국 다일공동체

133300 吉林省 琿春市 新安街 多一少年之家
Tel. +86-433-753-8004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Manoha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Tel. +977-98494-58330 / +977-98038-00670

포카라 지부

17 Damside Kaski, Pokhara Sub Municipality, Nepal
Tel. +977-98607-76685

우간다 다일공동체

P.O Box 85 Kisubi, UGANDA
Tel. +256-77107-2382

필리핀 다일공동체

까만씨 본원

2A Mustang st Pusok, Lapu-lapu city,
6015 Cebu, PHILIPPINES

까비떼 지부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1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63-92-7560-7346 /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Sea Breeze APT SB-2, Plot No. 192,
Dar es Salaam, TANZANIA
Tel. +255-629-426-641

베트남 다일공동체

R4-51 Hung Gia2, PMH, Tan Phong Ward, District7,
HCMC, VIETNAM
Tel.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Tel. +1-416-824-4831

다일공동체 대표번호 02-2212-8004로 전화주시면 전 분원, 전 부서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최일도 목사와 함께 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아름다운 세상찾기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울증, 중독, 가정불화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일정안내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4박 5일)

187기 / 12월 5일 ~ 12월 9일

2단계 작은예수 살아가기 (4박 5일)

50기 / 12월 12일 ~ 12월 16일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 (5박 6일)

23기 / 12월 19일 ~ 12월 24일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설곡산갈보리채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등록안내 및 입금계좌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다일공동체)

신청 및 문의

문의 : 031 585 6478

010 3671 8014

홈페이지 : WWW.DAIL.ORG

갈보리 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예수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살아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귀하를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 채플에 초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 10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
TEL. 031 585 2004 (통화가능시간 오전9시-오후6시)
네비게이션에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다일천사병원 앞에서는 매 주일 오전 8시에
서틀 버스가 출발합니다.
탐승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방법

홈페이지로 신청



<http://www.dail.org>

다일공동체 홈페이지 방문 → 후원하기 클릭 → 원하는 후원방법 클릭
일반후원, 프로젝트후원, 특별후원, 기업/단체후원, 다른방법

전화로 신청

02-2212-8004



다일공동체에 전화 → 통화 연결음 후 1번 누르기 → 후원관리실 연결

우편으로 신청



02558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소식지 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 작성 → 다일공동체 주소 기입 후 우편으로 전달

카카오톡으로 신청

다일공동체 Yellow아이디



ID/플러스친구 검색 → 다일공동체 찾기 → 친구등록 완료 →

1:1채팅하기 클릭 → 원하는 후원방법 클릭

정기후원하기, 일시후원하기



다일공동체 페이스북 방문(<https://www.facebook.com/dailcommunity>) 후

'좋아요', '팔로잉' 클릭 부탁드립니다. 한 번 클릭 시 1000원의 기부 효과가 있습니다.